



롯데제과 임직원이 아름다운가게에 빼빼로를 기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제과, 코로나19 극복 위한 나눔 활동 아름다운가게 등에 과자 4천600여 박스 전달

롯데제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4월 21일 아름다운가게에 빼빼로 등 과자 약 590박스를 전달했다. 이들 제품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생계지원금 기금 마련을 위해 서울 안국점 포함 27개 매장에서 판매됐다.

롯데제과는 밀알복지재단에도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한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힘내요 키트' 제작을 위해 몽셀 등 과자 약 1천 박스를 전달했다.

또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에 몽셀, 칙촉 등 과자 1천400여 박스, 웨이커 마시는 오트밀

등 1천500여 박스를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들 제품은 서울과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노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제작과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의료진 지원에 쓰였다.

롯데제과가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지원한 제품은 총 4천635박스로, 주로 몽셀 등 파이류와 웨이커 등 가정간편식(HMR)으로 구성했다. 롯데제과는 향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